	<p>2023년 수능완성</p>	<p>유형연습①</p>	<p>「문」 분석 및 정리</p>
---	-----------------------	--------------	------------------------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어느 집이든 ‘문’이 있음.

단정적 어조를 통한 주제 강조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지시 대상의 확대로 일반화함 :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통념이 필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제시함.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일반적 통념 ‘문’의 크기가 문의 열고 닫힘을 보장하지 않음.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문이 열려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문이 닫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연: 어느 집이나 있는 문과 크기에 따른 열림의 가능성

‘문’에 대한 통념을 뒤집음
상투적 현실을 새롭게 보려는 상황 기반의 아이러니를 보여줌.

2연: 열림과 닫힘에 대한 통념 부정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1연 1행의 반복을 통한 주제 강조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상식적인 세계에 비판 의식을 던짐.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념을 뒤집음.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함.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념이 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통념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린다는 통념을 뒤집음.

‘문’의 열림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

3연: 문의 일반적 속성에 대한 균열

4연: 문의 속성과 열림에 대한 가능성 변화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단절적 속성을 지닌 소재.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연결과 단절이라는 이항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형용의 아이러니

자리 잡는다
'문'의 능동적 변화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의 단절 가능성을 강화함.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상호 모순성의 경계를 무너뜨려 새로운 의미를 제시함.

열림이라는 기능을 가진 문과
단절이라는 속성을 가진 담이나 벽을 같은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봄.

5연: 담과 벽이 되는 문

5연 끝부분과 6연 첫 부분을 반복하여
연쇄적으로 이어짐.

소통과 단절이라는 모순된 속성의 대립을 뛰어넘는 인식

6연: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속성을 가진 문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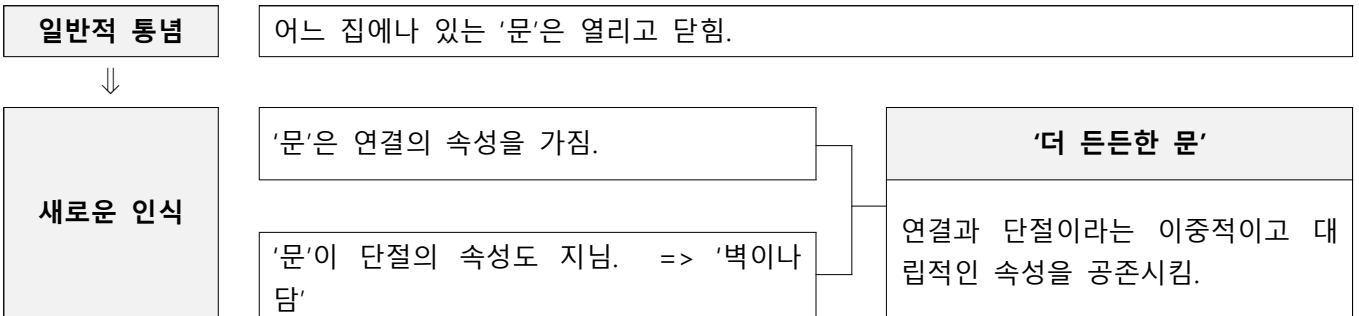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사유적, 단정적, 비판적
- ▶ 주제: 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비틀기
- ▶ 특징:
 - ① 단정적 어조로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표현함.
 - ② 부정적 서술어를 통해 일반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
 - ③ 일상적 소재를 낯설게 보기를 통해 발상의 전환을 드러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문'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인식과는 달리 문이 열려 있지만 열려 있지 않다는 표현과 연결의 속성을 가진 문이 단절의 속성을 가진 담이나 벽이 된다는 표현을 통해 문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독자를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출제 포인트

1. 모순적 인식



2. 표현상의 특징


- | | |
|--------|--|
| 구절의 반복 | ▶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연이 진행될수록 '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을 비틀어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라는 구절 자체에 대해 1연에서 가졌던 생각을 의심하도록 함. |
|--------|--|

- | | |
|---------------|--|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 ▶ '~이 없듯', '~지 않다'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흔들고 있음. |
|---------------|--|

- | | |
|------------|---|
| 대조적 시어의 활용 | ▶ '열리고', '닫힌다'와 같이 상황적으로 대비되는 시어들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
|------------|---|

- | | |
|--------|--|
| 단정적 어조 | ▶ '문이 있다'와 같은 단정적 문장 종결이나, '반드시', '그러나'와 같은 부사어를 통해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비판의식을 제기하고 있음. |
|--------|--|

- | | |
|---------|---|
| 부정적 서술어 | ▶ '없듯', '않다'와 같은 부정적 서술어를 통해 고정관념이나 통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 |
|---------|---|

	<p>2023년 수능완성</p>	<p>유형연습①</p>	<p>「문」 확인 및 평가</p>
---	-----------------------	--------------	------------------------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문'에 대한 ()인 생각 : 어느 집이든 '문'이 있음.

()적 어조를 통한 주제 강조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 지시 대상의 확대로 ()함. : '나의 문제가 아닌' ()의 문제임을 강조.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통념이 ()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제시함.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일반적 () '문'의 크기가 문의 열고 닫힘을 보장하지 않음.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문이 열려 있지 않을 ()이 있음.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문이 닫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연: 어느 집이나 있는 문과 크기에 따른 열림의 가능성

'문'에 대한 ()을 뒤집음
상투적 현실을 새롭게 보려는 () 기반의 ()를 보여줌.

2연: 열림과 닫힘에 대한 통념 부정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1연 1행의 ()을 통한 주제 강조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상식적인 세계에 ()을 던짐.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을 뒤집음.

()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함.

3연: 문의 일반적 속성에 대한 균열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문에 대한 () 및 통념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린다는 통념을 뒤집음.

'문'의 열림의 가능성에 대한 ()

4연: 문의 속성과 열림에 대한 가능성 변화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적 속성을 지닌 소재.		()이라는 기능을 가진 문과 ()이라는 속성을 가진 담이나 벽을 같은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봄.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연결과 단절이라는 이항 대립에서 발생하는 ()의 아이러니		
자리 잡는다 '문'의 능동적 변화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	5연: 담과 벽이 되는 문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5연 끝부분과 6연 첫 부분을 반복하여 ()적으로 이어짐.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의 () 가능성을 강화함.		소통과 단절이라는 모순된 속성의 ()을 뛰어넘는 인식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상호 모순성의 경계를 무너뜨려 ()를 제시함.		
		6연: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속성을 가진 문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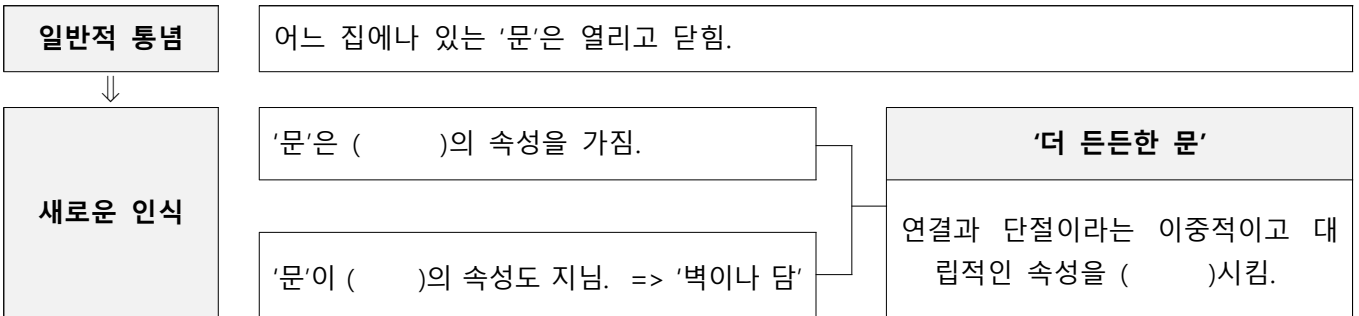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사유적, 단정적, 비판적
- ▶주제: 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비틀기
- ▶특징:
 - ① ()적 어조로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표현함.
 - ② () 서술어를 통해 일반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
 - ③ 일상적 소재를 ()를 통해 발상의 전환을 드러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문'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인식과는 달리 문이 열려 있지만 열려 있지 않다는 표현과 연결의 속성을 가진 문이 단절의 속성을 가진 담이나 벽이 된다는 표현을 통해 문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독자를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출제 포인트

1. 모순적 인식



2. 표현상의 특징

- | | |
|-------------|---|
| ()의 반복 | ▶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연이 진행될수록 '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을 비틀어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라는 구절 자체에 대해 1연에서 가졌던 생각을 ()하도록 함. |
| 유사한 ()의 반복 | ▶ '~이 없듯', '~지 않다'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흔들고 있음. |
| ()적 시어의 활용 | ▶ '열리고', '닫힌다'와 같이 상황적으로 ()되는 시어들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
| ()적 어조 | ▶ '문이 있다'와 같은 단정적 문장 종결이나, '반드시', '그러나'와 같은 ()를 통해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비판의식을 제기하고 있음. |
| ()적 서술어 | ▶ '없듯', '않다'와 같은 부정적 서술어를 통해 고정관념이나 통념에 대한 ()을 제시하고 있음. |